

12월 행사

1. 생신축하(11월. 12월)

- 날짜: 12월 11일
- 명단 : 강점순, 송숙자,
안광선, 윤병두, 마소임,
인구례

2. 썬타할아버지 행사

12월 24일 썬타할아버지
생사가 있습니다.

밝은햇살소식지



추수감사 예배

사진: 추수감사절 예배
장면

지난 11월 8일(일) 날 요양원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양원 어르신 중 한 분이 추수감사예배를 꼭 드리고 싶다고 간청하셔서, 저희 건물 6층에 있는 예수교회를 시무하는 목사님을 모셔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 요청을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흔쾌히 승락해주셨고, 요양원에 오실 때 바나나와 귤을 한아름 갖고 오셔서 어르신들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거의 1년만의 예배 였던것 같습니다. 요양원 선생님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수요일날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 올해는 오시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께는 여러모로 감사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요양원에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고, 어르신들이 듣기 편하도록 재미있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말씀을 재미있게 집중하여 들으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주일날도 어르신들이 같은 건물에 있는 예신교회에서 예배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을 교회에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도 보내주셨고, 예배 중에 어르신들이 소리를 내고 소란스럽게 해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아프고 힘들어 하실 때, 그리고 임종 하시기 전에 오셔서 기도해주시고 어르신들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셨지요. 참 감사하지요. 빠른시일 내에 요양원에서 예배가 다시 드려질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성당에서도 매주 찾아오셔서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찬송가를 불러 주시며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일일이 위로해 주셨는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이 모든게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양원 외부 간판 설치



요양원 건물 외벽에 요양원 간판을 새로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창문에 붙어 있던 요양원 이름이 새겨져 있던 스티커는 세월이 흐르면서 빛에 많이 바래 조금은 흉물스럽게 보여지기도 하여, 때어 내고 유리창을 깔끔하게 청소하였습니다. 유리창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니 훨씬 사람 사는 곳처럼 보여지고, 묵은 때를 벗겨낸 것 처럼 개운하고 시원한 기분이 듭니다. 퇴근 길에 환히 빛나는 '밝은햇살요양원'을 보니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이 한데 어울어져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스며들었습니다. 삶에 있어 변화를 조금씩 주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프로그램 활동사진



사진 설명(위에서 아래로)

1. 핸드벨 연주
2. 전통놀이
3. 컵 쌓기
4. 실내 산책